

<http://www.segye.com/content/html/2015/11/26/20151126004589.html>

韓측 전문가 “아베의 꿈은 보통국가화” 日측 전문가 “집단적 자위권은 한국에도 있어”

한국과 일본의 학자·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26일 서울에 모여 ‘일본의 꿈, 아베의 꿈’을 화두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.

이날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과 한국정치학회이 공동 주최해 ‘아베 신조(安倍晋三) 정권의 미래구상과 한·일관계’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는 유명한 전 외교부장관, 도요우라 준치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등 양국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.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차분한 가운데, 날선 공방도 벌어지며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을 둘러싸고 한·일 양국 전문가 간 인식 차를 드러냈다.

